

WALK 01



길 위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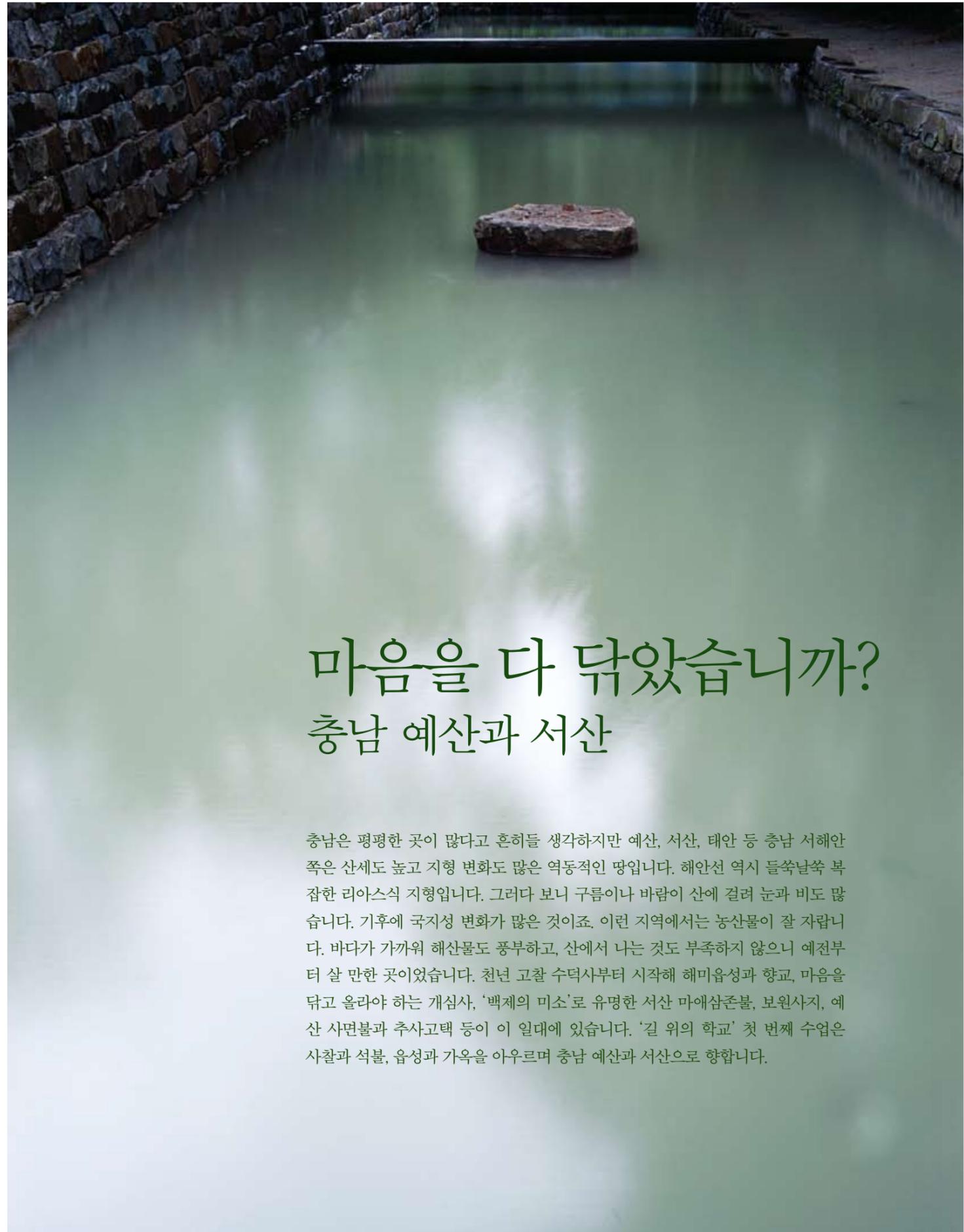
‘길 위의 학교’는 우리 땅과 역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읽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놓인 자연과 지리를 살피면서 옛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풍경을 만들었는지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건축 답사의 대가, 최종현 교수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옛 선비들은 높은 곳에 올라 풍광을 보며 호연의 기를 키우고
시를 읊으며 벗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다 경계 좋은 곳 바위에는
각자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산수는 옛 사람들의 학교였습니다.
그 산수간에 집을 짓고 원림을 꾸밀 때도 자연히 먼저 땅을 읽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우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건축을 보노라면
자연스레 우리 땅을 읽고 보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시경
지경

추사고택 근처 화암사 뒷산의 바위, '시경'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어
선비들이 놀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다 닦았습니까? 충남 예산과 서산

충남은 평평한 곳이 많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예산, 서산,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쪽은 산세도 높고 지형 변화도 많은 역동적인 땅입니다. 해안선 역시 들쭉날쭉 복
잡한 리아스식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름이나 바람이 산에 걸려 눈과 비도 많
습니다. 기후에 국지성 변화가 많은 것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잘 자라니
다. 바다가 가까워 해산물도 풍부하고, 산에서 나는 것도 부족하지 않으니 예전부
터 살 만한 곳이었습니다. 천년 고찰 수덕사부터 시작해 해미읍성과 향교, 마음을
닦고 올라야 하는 개심사,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예
산 사면불과 추사고택 등이 이 일대에 있습니다. '길 위의 학교' 첫 번째 수업은
사찰과 석불, 읍성과 가옥을 아우르며 충남 예산과 서산으로 향합니다.



강의 최종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리 편집부
 사진 어상선 (어린 스튜디오)

함께하신 분들
 민정기 (화가)
 성재혁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금선희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최종현 '길 위의 학교'를 이끌어 줄 최종현 교수는 1945년 만주 봉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아왔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이자 통의건축도시역사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서양건축사에서 비롯된 그의 학문적 관심은 조경에서 한국 건축사, 한국 및 동서양 도시 역사 등으로 옮겨왔고 평생 이 분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왔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땅 곳곳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는 해외 유학 대신 국내 건축 답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도와 실록 등의 문헌 연구와 답사를 통해 지형을 읽고 건축과 문화를 이해하는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민학회 건축 답사를 통해 수많은 답사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키웠고, 서울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도시사에 대한 많은 전문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대중 저작을 남기거나 강연을 하는 대신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다'며 정년의 나이에도 연구에 몰두하는 그가 『보보담』을 위해 '길 위의 학교'라는 특별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01

첫 번째 여정 : 예산 수덕사

오래 가려면 느슨해야 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수덕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덕사는 지은 지 천 년이 넘은 절입니다. 고려 목조 건물이 남아 있는 사찰로 흔히 이곳 수덕사와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고려 때 것이라도 부석사 무량수전은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데 비해 여기 수덕사 대웅전은 강인하고 건강한 느낌이 나죠. 고려 시대 것 중에 가장 건강한 느낌입니다. 전체 구조나 나무를 쓴 모양새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먼저 대웅전 아래 장대석부터 보세요. 돌들의 크기가 다 다르죠? 계다가 돌과 돌 사이가 엉성해서 틈이 있습니다. 대충 맞춘 것 같나요?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데요, 이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엉성한 돌 틈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대웅전 올라오는 길에 최근에 새로 조성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돌들이 제자리에서 다 밀려나 있는 걸



01. 수덕사 대웅전(국보 49호). 1937년 완전 해체하여 수리를 하다가 1308년의 건립 기록이 적힌 문서가 발견되어 정확한 건립 연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02. 대웅전 아래편의 장대석.



03

보셨습니까? 요즘은 이런 계단을 만들 때 지형과 기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아기가 딱 맞게 합니다. 그게 더 쉽죠. 그러다 보니 비가 내리면 토압에 의해 계단이 터지고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대 토목 기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옛사람들만큼의 지혜가 없어요. 이 대웅전은 본래 지형을 깎아 흙을 쌓은 위에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흙과 물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선 장대석이 느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자연을 보는 눈이고, 건물을 짓는 지혜입니다.

이제 대웅전 건물을 봅시다. 고려 때 건물은 호화롭기보다는 웅장합니다. 고려 시대 건물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단순합니다. 창살 문양도 한 종류로 단정하지요. 정면에서 보면 지붕이 건물보다 좌우로 길게 빠져 있지요? 지붕선이 짧은 건물은 비바람이 옆에서 들이쳐 건물이 상할까 봐 측면에 나무로 풍벽을 만들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서 볼 때 시야가 막혀 답답하죠. 하지만 수덕사 대웅전은 지붕 선이 길어서 풍벽이 필요 없으니 측면이 아주 경쾌합니다. 구조가 명쾌하고 단정해요.

흔히 이 대웅전을 정면 3칸, 측면 4칸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측면을 언뜻 보면 4칸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기둥은 건물이 커서 보가 될 것 같으니까 보조로 세운 게 아닐까 합니다. 법당 안쪽에서 보면 다른 기둥들과 달리 가운데는 기둥이 없어요. 밖에서도 '이건 진짜 기둥이 아니다'하고 알 수 있도록 가운데 기둥만 유독 각지게 되어있어요. 이 기둥이 있어서 밖에서 보기에 대웅전 건물의 비례가 맞아 떨어집니다. 역학적으로도, 시각적 균형 차원에서도 훌륭해졌지요.

건물 뒤편으로 가볼까요? 나무판자로 막아 놓은 문 같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오는 걸 법당 옆문을 통해서 하죠. 하지만 예전엔 그런 경우 법당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 부처님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범죄가 있을 때 큰스님만 정면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



04



05

03. 수덕사에 가면 큰절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암자도 둘러볼 만하다. 수덕사 바로 옆 작은 암자 화소대(花笑臺)에서 만난 목백일홍 한 그루를 만장기 화백이 그렸다. 화소대라는 이름은 부처와 제자 마하가섬이 한 송이 연꽃을 주고받으며 깨달음을 전한 '연화시중의 미소' 이야기에서 따왔다. 04. 수덕사 대웅전 뒤편. 공양 예를 등을 가지고 드나들던 출입문을 널빤지로 막아버렸다. 05. 대웅전 건물 측면. 5개의 기둥 대부분이 원기둥 형태를 띠고 있는데 비해 유독 가운데 기둥만 각재로 곧게 다듬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백락은 왕이 조회를 하던 궁궐 정전(正殿)에도 이어집니다. 정전은 앞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 뒤쪽을 이용했죠. 그래서 창덕궁 인정전 뒤쪽에 회랑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월대(月臺)를 통해 정전으로 출입하는 건,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든지 가마를 타고 나갈 때처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 옛 사람들의 예의와 규칙을 모르니까 아무 설명 없이 편의를 위해 이렇게 덜컥 범당 뒷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옛 문화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교한 측량 도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건물의 터를 잡고 방향을 맞추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 건축을 보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건축의 정면성(正面性)입니다. 정면성이란 흔히 서양 건축물을 볼 때 쓰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정면에서 바라본 방향이 갖는 가치'를 뜻합니다. 서양 건축에서는 건물의 4면 중 한 면, 대개 '파사드(façade)'라 부르는 주출입구 정면부에 특별한 가치와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부조나 조각 같은 장식으로 파사드를 아름답게 표현해서 정면성을 강조하죠. 서양 건축에서 정면성은 인간이 건축물 '바깥'에서 그 건축물을 바라봄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궁궐이나 종교적인 건물을 제외하면 건축물의 어느 한 방향에 중심 지위나 가치를 부여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건물의 중심과 그곳에서 본 사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건축물 내부에 자리를 잡고 건축과 하나가 되어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는 게 기준이었죠. 특히 우리나라 건축의 경우는 산과 산봉우리가 마주 대하는 연결선을 건물의 중심축으로 삼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에 마주 보는 산이 없어 산과 산을 잇는 축이 생기기 어려우면 산과 물을 잇고, 물도 마땅치 않으면 나무를 심어 산과 나무를 연결한 선상에 건물을 배치하기도 했죠. 이 원칙이 우리 건축의 입지를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서양과는 다른, 우리 건축의 정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경사가 진 곳에서는 중요한 건물일수록 높은 곳에 앉히는 것 역시 원칙입니다. 사찰이라면 대웅전이나 본당, 민가에선 사당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식이지요. 제대로 지은 우리 옛 건축들은 거의 다 이런 정면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 건물을 볼 때엔 경치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어떤 축선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 보세요. 건물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선을 그어보면 마주보고 있는 산봉우리가 있을 겁니다. 경주 황룡사지에 가면 이 원칙이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황룡사 중심에서 앞뒤 좌우로 선을 그어 보면 각각 대응하는 자연물이나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황룡사 좌우로 선도산과 명월산, 앞으로는 남산 칠불암, 뒤로는 사면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옛 건축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요.



06,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길 위의 학교' 참가자들. 07, 해미항교에 대해 설명 중인 최중현 교수. 08, 09, 10, 해미읍성 안의 감옥. 원형으로 돌려쳐진 담을 확인할 수 있다. 담 안쪽으로는 너른 마당을 두고 건물을 지어 옥사(獄舍)로 사용했다. 허술하게까지 보이는 외관에서 옛 감옥의 기능이 지금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네 옛 감옥은 심문과 조사, 판결이 끝나기까지 일시적으로 가두어두는 곳이지 장기 구금을 목적으로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여정 : 서산 해미읍성과 향교 우주를 담은 감옥, 우리 식의 인본주의

수덕사에서 우리 건축의 입지 원칙을 설명하느라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야겠네요. 해미(海美)로 가 보죠. 해미는 태종 7년(1407)에 정해(貞海)와 여미(餘美) 두 현을 병합해 만든 고을입니다. 원래의 해미읍성은 지금 자리보다 더 바다 쪽에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읍성을 내륙 쪽인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해미읍성만이 아니라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고창읍성, 낙안읍성 등도 새롭게 옮긴 것이지요. 해미읍성처럼 왜구를 피해 옮긴 읍성들은 유사시 민가들이 읍성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담이 높습니다. 여기 해미읍성의 높이는 20척, 지금 기준으로 약 5미터 정도 됩니다. 사실 방어용이 되기엔 여전히 그리 높지 않죠. 여러분이 보기에라도 사다리만 걸치면 쉬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성벽의 발달 과정을 보면 대포의 발달과 관계가 깊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부터 성을 공략하기 위해 화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화포 기술이 발달해 사정거리가 늘어나면 성벽도 점점 높아지고 해자도 넓어집니다. 그러다 사정거리가 아예 확 늘어나면 어느 순간 성벽은 무용지물이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여기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정도의 높이로 쌓은, 일종의 상징 장벽인 셈이지요.

해미읍성에는 동헌, 객사, 감옥, 민가 등의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읍성 구조와 기능을 추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동헌 앞쪽으로 동그랗게 담을 두른 곳이 감





옥입니다. 우리나라 엽전 있지요? 그 엽전이 우주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안에 땅을 상징하는 네모를 넣은 것이지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입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형으로 담을 쌓고 그 안에 네모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감옥에까지 우주를 담은 것이지요. 너만의 작은 우주에 들어가 생각을 해라, 사색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형벌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지금의 감옥 형태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하고 감시하는 사람의 시각이 중심이 된 구조지요. 우리 감옥은 담부터 둥글둥글하고 들어와 있어도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세상을 모나게 살았나 반성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 식 인본주의인 겁니다.

수덕사에서 대웅전 뒷문을 막아 놓은 것과 새로 만든 계단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서 동헌의 담을 좀 보세요. 원래는 크기가 다른 자연석들을 모양 그대로 살려서 담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복원하면서 동헌 정면 쪽 담은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사괴석을 쌓아 이어 놓았어요.

사괴석 담은 조선 숙종 이후에 발달했습니다. 단단한 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도구들이 발달한 이후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왕실이나 지체 높은 이들의 집에나 돌렸던 것으

로 아무 데나 쓰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을 모르니, 그저 보기 좋다는 생각에 현대에 복원하는 전통 담마다 사괴석 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괴석 담을 제대로 하자면 공력을 들여서 돌들의 크기를 가지런하게 일정히 맞춰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담처럼 들쭉날쭉하게 쌓으면 안 되죠. 역사적 맥락도 없고, 공도 들이지 않고, 총체적 난국이지요.

이제 해미향교로 갑시다. 해미향교는 올라가는 길이 참 좋지요. 양쪽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주 잘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 심었던 것이지요. 이 나무들은 향교로 들어가는 일종의 진입로인 동시에 문 구실을 했던 겁니다. 신성한 배움의 공간과 세속의 일이 벌어지는 공간 사이에 경계를 지은 거지요.

향교는 대개 이곳처럼 읍성 밖에 둡니다. 향교는 유학의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 한편 미래의 꿈나무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지요? 그러니 읍성 담장 안에 가두지 않고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해미향교 역시 대성전에서 내려다보면 남향으로 읍성과 수려한 경치가 보이지요. 향교에는 작게라도 누각이 있게 마련인데 이 누각 이름에 보통 바람 풍(風)이나 변환 화(化)를 많이 썼습니다. 이 글자에 담긴 뜻이 멋있는 게, 세상의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단지 자연의 변화뿐 아니라 세속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도시에 가면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에 포위당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세속은 고사하고 계절 변화도 보기 어려워요. '자연을 탐닉하고 세상 변화를 관찰하고 그렇게 커서 공부한 것을 세상에 펼쳐 보여라' 하는 큰 뜻은 들어설 여지가 없지요.



11. 해미읍성의 정문인 진남문. 해미읍성은 둘레가 1,800미터에 이르며 북쪽은 산을 끼고 있다. 12. 해미읍성 동헌 담장. 복원하면서 원래와는 다른 스타일의 축성 방식을 뒤섞어 쌓았다. 사진 오른쪽이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사괴석 담장. 13. 해미향교로 오르는 길. 몇 백 년 된 느티나무들이 진입로 겸 입구 역할을 하며 향교와 속세를 구분하고 있다. 14. 산길 입구에 서있는 바위에 '開心寺'와 '洗心洞'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마음을 여는 절, 마음을 닦는 골짜기. 15. 개심사 오르는 산길을 다 올라와 만나는 연지(蓮池). 날씨 좋은 4월의 봄날에는 연지가 떨어지고 비치는 산빛꽃이 좋다. 16. 대웅전 맞은편 누에 달린 개심사 현판. 17.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개심사 내 건물. 흰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세 번째 여정 : 서산 개심사

마음을 닦다, 마음이 열린다

오늘 마지막 일정은 개심사(開心寺)입니다. 개심사는 서산군 운산면 상왕산(象王山)에 있는 절입니다. 상왕산이란 이름에 코끼리가 들어 있지요? 불교적인 상징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이 불교가 융성했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지요. 조선 시대 들어서 유학자들이 불교나 도교적인 지명을 유교식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남아 있네요.

개심사는 절 아래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산길을 걸어 절까지 올라가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입로 입구를 보십시오. 입구 양쪽으로 바위에 글씨가 써어 있는 게 보이지요? 오른쪽 바위는 무슨 글자입니까? 개심사(開心寺) 즉 마음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바위에는요? 세심동(洗心洞)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닦는 동네입니다. 몸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을 닦으란 말이에요. 저 아래 일주문을 지나면서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입구부터 절에 이르기 전까지 산길을 오르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닦으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절에 당도하면 본 건물이 나오기 전 '경대(鏡臺)'라는 연지 즉 연못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연못을 거울 삼아 마음을 잘 열고 닦았는지 비춰보라는 의미죠. 지금은 연못 크기도 1/3 정도 줄고, 연못 안에 있던 '경석(鏡石)'이라 적힌 돌도 뽑아내서 아쉽습니다. 이곳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을 고요하게 닦지 못했다면 연못 앞에서 뒤돌아 산을 내려가야겠죠. 비가 오는 날 이곳에 온 건 처음이군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고즈넉하고 좋지요? 개심사는 건축적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혼자 찾아보고 느껴보세요. 중심축이 어떻게 그이는지, 앞뒤 산봉우리로 이어지는 선을 스스로 그려보면서요.

우리 절들을 보면 나무를 곤게 다듬지 않고 자연적으로 휘고 비틀어진 모양을 그대로 살려 쓴 곳들이 많은데 이 개심사에서 그런 편입니다. 곧은 기둥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죠. 대웅전 뒤쪽 문도 막지 않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옛것을 대하는 마음 씀이 한결 낫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천천히 절 곳곳을 관찰해 보세요. 마음을 열었는지, 닦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서 말입니다.





네 번째 여정 :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예산 사면불
이글거리는 광배, 문화가 교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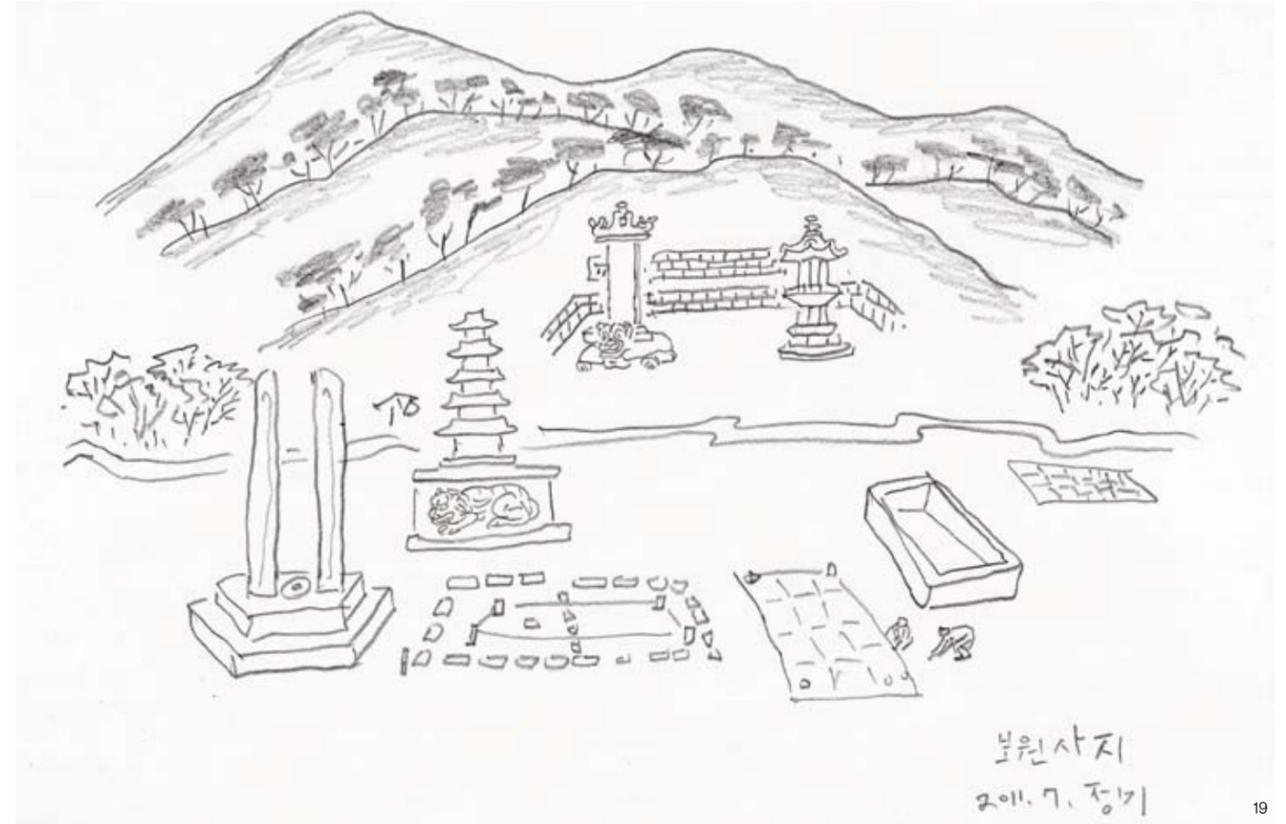
어제 비 오는 개심사도 처음이었는데, 비 오는 날 마애삼존불을 보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네요. 다니기엔 불편해도 이걸 또 이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이 처음인 분들은 맑은 날 다시 한번 찾아와서 햇빛이 비출 때 불상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비교해 보면 더 좋겠네요.

한동안 마애삼존불을 보호한다고 바위 앞에 누각을 만들어 씌웠는데 지금은 철거했습니다. 누각 때문에 오히려 유물이 더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보존과학은 정말 세심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예측하고 실험을 해 본 후에 유물과 유적에 적용해야 하는데, 대개는 의견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덜컥 시행해 버리는 식이지요.

누각을 철거한 대신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새로 문을 달았습니다. 문 현판에 '불이문(不二門)'이라고 적혀 있지요? 둘이 아니다, 즉 하나라는 말입니다.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이곳 마애삼존불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본존불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본존을 모시는 협시불이 있지요. 특히 본존불 왼쪽 협시불이 반가사유상이라는 점이 서산 마애삼존불의 특징입니다. 세 분 불보살들이 모두 아주 온화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흔히들 '백제의 미소'라 부르곤 합니다. 지금은 올라오는 길에 계단이 있어 오기 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마애삼존불은 천 몇 백 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수십 년 전에야 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외지고 깊은 곳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곳에 마애삼존불이 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곳이 중국과 백제를 오가는 경로였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가 태안에서 부여로 오가는 길이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제오늘 걸어 봐서 알겠지만 이 지역은 산세에 굴곡이 많아 규모 있는 교역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일대가 날씨 변화나 자연 환경에 변화가 잦아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고 물산도 풍부해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 근방에 유독 큰 절들이 많죠. 불상도 사람



들의 삶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곳이라 삼존불이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럽도 12~13세기 사이 도시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 때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원래 척박한 땅이던 북유럽까지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도시가 늘어나면서,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생산력과 문화가 더불어 발전하는 거죠. 실크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 간에 교역이 활발해 실크로드 상의 도시들이 번성할 때,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불교미술이 융성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산다는 것이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유물과 유적을 대할 때, 지리, 기후, 경제사적 배경들을 함께 헤아려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까닭이죠.



18. 서산 마애삼존불을 옆에서 본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바위에서 느껴지는 조각의 질감이 남다르다. 일부 문화해설사들은 마애삼존불을 설명하면서 본존 양편의 보살들을 가리켜 본처와 첨이 질투하는 사이에 빗대 표현하곤 하는데, 비록 재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보인다. 19. 민정기 화백이 그린 보원사지 전경. 사진으로 담기 어려운 공간 배치의 특성이 그림 속에 오롯이 살아 있다. 20. 보원사지 입구 쪽 당간지주. '당'이란 철에 범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거는 깃발이고, '간'은 그 깃발을 지지하는 막대기를 말한다. 당간지주는 당간을 걸어 고정하는 구조물로, 흔히 두 개의 높은 돌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21. 보원사지 5층 석탑(보물 제104호)의 기단부. 네 면에 각각 2구씩의 조각이 있는데,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장(神將)인 팔부신중(八部神衆)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보원사지는 개심사에서 산 너머 반대편에 있습니다. 보원사지 뒷산으로 넘어가면 개심사까지 쉽게 오갈 수 있죠. 보원사(普願寺)는 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절이라고 하는데 백제의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통일신라 유물로는 당간지주와 5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석탑 아래쪽을 빙 둘러 조각이 있는데, 많이 마모되어 정확한 형체와 솜씨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꽤 공을 들인 조각입니다.

보원사 터에는 예전에 물을 담았던 석조가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이 절이 오래도록 꽤 큰 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석조는 법주사 정도에만 있고 다른 곳에선 본 적이 없어요.

이곳은 앞산과 뒷산을 연결한 축에 건물을 배치하기엔 지형의 제약이 있습니다. 절터 가운데로 개울이 흐르면서 앞뒤가 좁고 옆으로 긴 지형이 되었죠. 그래서 축선상에 수직으로 가람(伽藍)을 배치하지 못하고 땅에 맞추었습니다. 법당을 지을 때도 앞뒤 산이 아니라 앞산 봉우리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원사지를 올 때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탑을 바라보고 왼편 산자락, 지금 잡목이 우거진 숲에 민가가 세 채 있었거든요. 거기 천년 된 탱자나무가 있었는데 1980

년대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화사업을 한다고 베어버렸습니니다. 역사의 흔적이란 오래된 나무 한 그루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무신경했던 것이죠.

자, 잠시 예산에 들러 사면불을 보고 갑시다. 사면불은 사방불이라고도 하는데 경주 남산에 조금 남아 있고 우리나라엔 흔하지 않아요. 사면불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던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인도 힌두교의 영향이 섞인 겁니다. 사면불 이후에 평면적인 삼존불이 나타나지요. 불교문화가 본격화된 겁니다. 예산 사면불은 백제 시대 것인데 다른 곳에 있던 돌을 옮겨온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던 돌에 조각을 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에 새긴 부처님들의 크기와 균형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일 테고요.

네 부처 중 남쪽을 향한 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조각을 열심히 한 게 느껴지시죠? 광배의 불꽃을 보세요. 활활 타 오르잖아요. 이 정도 박력과 테크닉을 갖춘 조각은 드문 편입니다. 옷도 겹겹으로 겹쳐 내려오는 걸 잘 표현했고요. 광배는 해를 등진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태양을 숭배하던 유목민들의 전통이 종교에 스며든 것으로 보입니다.



22. 보원사지 당간지주와 수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3. 민정기 화백이 그린 예산 사면불과 주위 경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세운 것을 그림에서 느낄 수 있다. 지금은 후대에 심은 나무들이 경관을 가로막고 있다. 24, 25. 예산 사면불.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듯한 광배가 인상적이다. '4면'이라는 숫자에서 인도의 힌두교적 전통을, '광배'에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태양 숭배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작은 유물 하나에서도 교차하는 문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다만 사면불을 보호하기 위해 씌운 누각을 좀 더 크고 시원하게 지었더라면 햇볕이 자연스레 들어오면서 사면불의 아름다움을 보다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26. 추사고택 내부 전경. 앞쪽에 있는 건물이 사랑채, 그 뒤편이 안채이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기단부의 높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에 위계를 부여했다. 27. 추사고택 안채의 셋문을 통해 곧장 사당으로 올라가는 길. 여성을 배려한 기능적이고 짧은 동선이다.



다섯 번째 여정 : 예산 추사고택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물을 보다

이번 답사의 마지막은 추사고택입니다. 추사고택의 건물들은 단아하면서 밀도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지형에 지어졌는데, 맨 위쪽 사당에서부터 안채와 안마당, 중문을 거쳐 사랑채로 이어지며 차츰 낮아집니다. 공간마다 기단을 조성해 위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사고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요 건물 한쪽으로 우물도 있고 아랫사람들이 생활하던 집들도 있죠. 우리는 옛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이런 부속 건물들을 제외합니다. 절반만 보는 거지요. 하인들이나 여자들의 동선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옛 건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공간을 입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지요.

추사고택의 안채는 지형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사고택의 안채가 모자형이라 답답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당을 좀 보세요. 빛이 구석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안채 마루에서 하늘을 보면 시원하게 내다보이죠. 지형의 경사를 따라 건물체의 지붕들도 층을 달리했기 때문에 전망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은, 지금 봐도 훌륭한 설계예요.



옛날 양반 가옥들은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서로 달랐죠. 이 집의 경우, 제사를 지낼 때 남자들은 사랑채에서 마당을 거쳐 사당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여자들은 안채에서 음식을 준비해 별도의 셋문으로 빠져 나와 곧장 사당으로 오갈 수 있었죠. 이 집은 여성들의 동선이 짧고 기능적입니다. 남자들은 좀 둘러서 가지요. 의전이라는 건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안채 뒤편 길로 사당까지 가 봅시다. 길이 어때요? 폭이 좁지도 넓지도 않은 게 참 단정하지요? 이게 딱 소반을 들고 걷는 폭입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안채 중문과 사랑채가 이어지는 공간을 봅시다. 사랑채 뒤쪽 벽에 창문이 나 있지요. 왜 저 위치에, 저 높이와 저만한 폭으로 창문을 냈을까요? 이건 안채에서 사랑방으로 곧장 상을 들이던 통로입니다. 건물 앞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 기능적이지요. 여자들의 동선이 밀도 높고 합리적인 집입니다. 창문의 위치를 보면 소반을 든 높이 등을 고려했음이 보입니다.

또한 창문턱의 경우, 그 높이가 안에서 상을 받으면 방밖에서

상이 보이지 않도록 높습니다. 밖에서 보면 딱 앉은 사람의 상반신만 보이지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감추고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문턱은 방 안에 사람이 누웠어도 밖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창턱에 턱을 괴고 밖을 내다보기에도 딱 좋은 높이죠. 세심하게 많은 점을 고려해 지은 집입니다. 서울 사대부 가옥도 이 정도로 꼼꼼히 만들어진 것이 드물죠. 실용성과 기능성, 아름다움을 두루 갖춰 지었다는 것이 추사고택의 미덕입니다.

자, 첫 번째 '길 위의 학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보고, 그들의 멋과 지혜를 살펴보는 것, 우리 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길 위의 학교'의 수업 목표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8. 안채(왼쪽 건물) 중문과 사랑채(오른쪽 건물) 뒤편 창문은 약간 비켜서 마주보고 있다. 즉 안채 중문에서 상을 들고 나오면 바로 사랑채 창문으로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동선이다. 29. 여러 가지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높이를 정한 사랑채 창문. 30. 안채 마루에서 올려다본 하늘. 공간에 좀 더 담담할 것이라던 선임건축가는 달리, 전망이 트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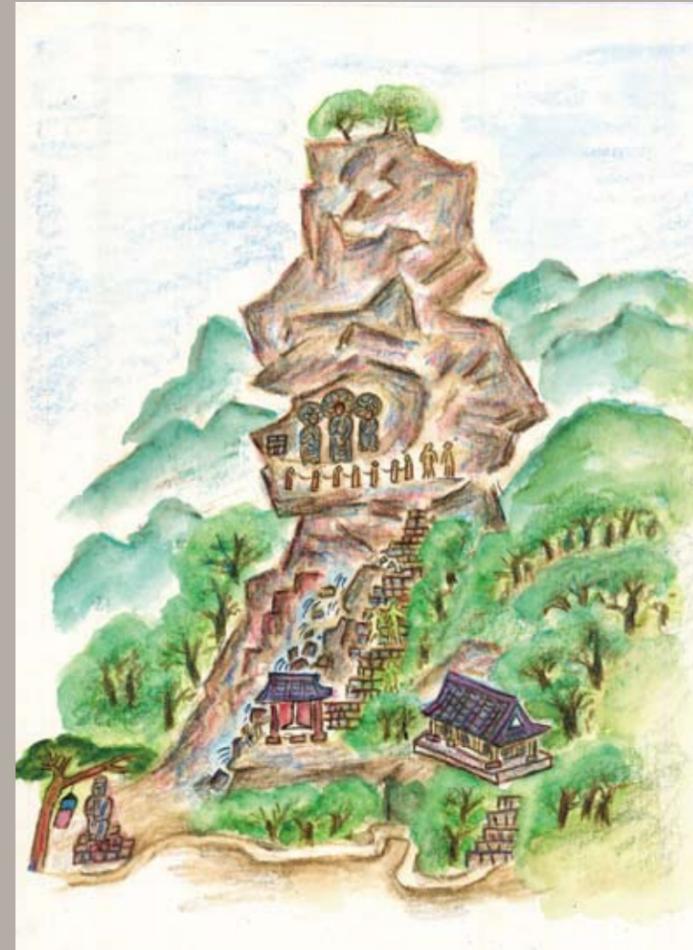
수업이 끝나고

금선희 이런 식의 답사는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그동안 저 혼자 볼 때 많은 것들을 놓쳤구나 싶습니다. 이번 답사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국 절들은 일본 절들에 비해 색갈이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일본 신사나 절은 적갈색이나 진홍색 정도가 많은데, 한국 절의 '단청(丹靑)'은 훨씬 컬러풀하면서도 그것들이 모나게 튀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단청의 푸른색이 수평의 목 기둥 색깔에서 유래했다는 점, 절의 기와지붕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기에 지붕 아래에 화려한 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들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성재혁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들은 장대석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서양식 건물들 중에 적당한 크기로 돌을 쪼개거나 자갈을 골라서 외벽을 쌓고 철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의 현대미술 전시실 바깥 편에 있는 축대 같은 게 그렇지요. 그 원리가 장대석을 쌓은 원리와 같습니다. 비 등

의 기후 조건을 반영한 것이지요. 이처럼 동서양이 같은 원인을 두고 디자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한 점이 재미있습니다. 해미향교를 오르는 길에 나무로 세속과의 경계를 설정한 점이나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담은 해미읍성의 감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식 '인본주의 디자인'의 다양한 결을 본 것 같아요.

어상선 개심사를 오를 때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다 오르고 나니, '그래, 어렸을 때는 절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을 위한다고 길을 닦고 자동차로 절 앞까지 갈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정말 마음이 닦이는구나 싶었어요. 추사고택 안채에서 바라본 지붕과 하늘도 좋았습니다. 이제까지 안마당이 좁은 한옥을 보면 지붕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갑갑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 지어진 집들만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기 '길 위의 학교'에 동행하며 그림을 그려 준 민정기 선생은 서양화에서 출발하여 동양의 산수나 무속화, 고지도의 방법론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낸 화가입니다. 1980년대에는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고, '이발소 그림' 식의 키치 요소를 활용해 사회 모순과 삶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리되 평면적인 모사가 아니라 대상이 놓인 공간과 시간, 즉 장소의 구체성과 역사성을 화면에 담으려 합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최민은 민정기 선생의 작업을 '동도서기(東道西器)'라 평가합니다. 서양의 방법론으로 동양의 정신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여정의 일부를 담은 간단한 드로잉들에서도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보다 그 장소에 갖든 관계와 핵심에 주목한다는 점에 선생의 혜안이 있습니다.



새롭고 화려한 것들도 많은 세상에 구태여 옛 건축을 만나러 가는 건
그곳에 담긴 옛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만나려는 뜻입니다.
우리 땅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며
빠른 속도의 세상에서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 합니다.
굳이 지식 삼아 어렵게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으며 잠시 잊혀졌던 기억들이
걸음걸음 떠올라 어느새 우리 마음을 비쳐 줄 테니까요.

수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내려다 본 풍경.